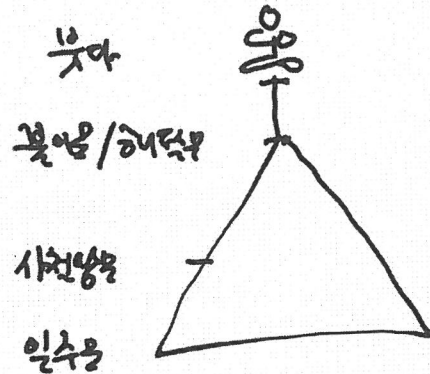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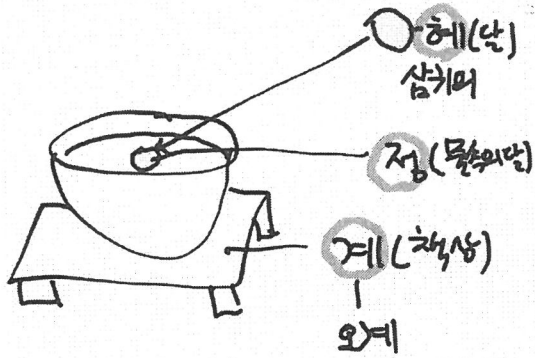


1강 불교란 무엇인가



(14쪽)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

(번역) 삼귀의와 오계를 받아 악행을 삼가하여 선업을 쌓으며 정혜를 닦아 마음(자성)을 깨끗이 하는 것이 불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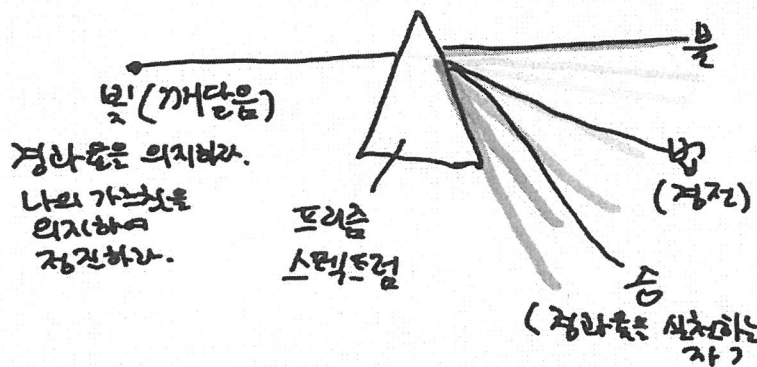
자성청정自性淸淨

(30쪽) 戒器完固 定水澄清 慧月方現

계(계율)의 그릇이 견고해야 정(삼매)의 물이 맑아지고 정의 물이 맑아지면 지혜의 달이 잘 나타난다.

안으로는 마음을 청정히 하여 자신의 붓다를 만나는 것이고 밖으로는 수미산의 부처님에 참배한다.

2강 귀의삼보(칠정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귀의불)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귀의법)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귀의승)

왜 우리는 삼보에 귀의하는가? 깨달음 때문이다.

그리고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깨달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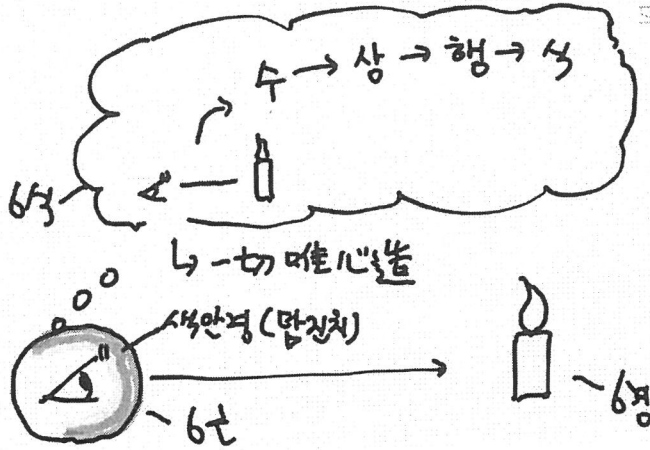
그러면 깨달음은 무엇인가?

(60쪽) 깨달음에 대한 것은 부처님께서 “경전과 계율이 그대의 스승이 될것이다. 나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하였다.

문수사리보살은 범어 원어는 만주슈리(Manjushri)에서 왔다.

경전과 율장은 연기자가 대본을 보고 연기를 하듯이 참고한다. 금강경의 뗏목처럼..

3강 4강 오온개공과 오온윤회



불교는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현상'을 觀한다.

●오온(색수상행식)

나는 누구인가? 육신과 정신의 결합이다.

육신은 색이고 정신은 수상행식이다.

색은 '대상경계'를 보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상이다. 보이는 것은 색이고 보는 것은 눈이다.

수는 '마음속 대상'에 대해서 '좋다' '싫다'고 생각을 일으키고

상은 마음속 이미지로 남겨지고

식은 마음속 씨앗(업력)이 되어 다음생을 기약하며 생사윤회한다.

(98쪽)육근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고 육경은 색깔, 소리, 냄새, 맛, 달음, 법이다.

육근이 육경에 대해서 인식한다.

(101쪽)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촛불을 볼 때 내마음의 상태(탐착의 정도)에 따라 본다. 사물을 그냥보는게 아니라 내마음이 그려낸 의식의 작용(一切唯心造)에 따라 본다.

●고집멸도 사성제를 설했다.(125쪽)

고집은 고통의 원인을 밝히면 탐진치(색안경)이다. 12연기의 유전문

멸도는 색안경을 벗으면 생노병사 고통에서 해탈한다. 12연기의 환멸문

●탐진치는 색안경

색안경은 사회윤리적 관념과 사상이다.

탐진치 색안경을 벗지 못하면 생사윤회하고 탐진치 색안경을 벗으면 해탈(空)한다.

(88쪽) 색안경을 끼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잣대로 재듯이 시비하고 분별한다.

늘 스스로 탐진치의 수치를 점검해야한다.

●십선업 → 십악업(색수상행식 五蘊중 行은)

불교는 일체의 업을 크게 열가지로 정리하며, 그것을 다시 선악에 따라 십선업과 십악업으로

로 나눈다. 탐 진 치 망어 양설 악구 기어 살생 투도 사음이 십악업이다. 그 반대가 십선업이 된다. 그리고 이 십업은 다시 身口意 三業(132쪽)으로 분류하면 탐, 진, 치는 意業이고 망어, 양설, 악구, 기어는 口業이고 살생, 투도, 사음이 身業이다.

(142쪽) 십선업의 궁극적인 지향은 선악을 뛰어넘는 마음의 정화이며 지혜의 계발이다.

●윤회(연기의 유전문)과 해탈(연기의 환멸문)<sup>1)</sup> (147쪽)

무명(癡)→행→識→명색(수상행/색)→육입(六根)→촉→수→渴愛→취→유→生老病死  
 무명에 의해서 생사윤회가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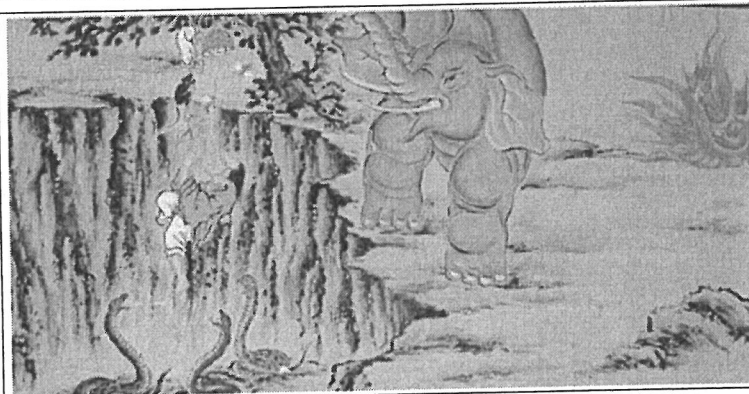
무명(癡)↔행↔識↔명색(수상행/색)↔육입(六根)↔촉↔수↔渴愛↔취↔유↔生老病死  
 (148쪽) 생사윤회의 극복은 무명의 소멸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였다.

(150쪽) 아라한은 생사윤회를 벗어난 성자이고 보살은 생사윤회에 얽매이지 않는 성자이다.

●반야심경

관이 자재한 보살이 오온이 공한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五蘊)색 수 상 행 식도 없으며, (六根)안 이 비 설 신 의도 없고, (六境)색 성 향 미 촉 법도 없으며, (六識)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12緣起)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사정제)고 집 멸 도도 없다.



(127쪽) 岸樹井騰 (우리 인생무상)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들불이 일어난 드넓은 들판에서 험악한 코끼리가 만났다. 그는 급히 언덕아래 우물에 늘어져 있는 등나무 뿌리를 잡고 내려가 숨었다. 그때 흰쥐와 검은귀가 이빨로 나무를 갉고 있고 우물 중턱 사방에는 네 마리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고 우물아래쪽은 독을 지닌 용이 있었다. 이때 나무틈 별집에서 꿀이 떨어지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달콤한 꿀맛(탐진치)에 취해 버렸다.

들불과 드넓은 광야는 지옥, 아귀, 아수라, 인간, 하늘세계에 생사 윤회하는 것을 상징한다. 코끼리는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상살귀를 상징하고 우물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흰쥐와 검은쥐는 밤과 낮을 비유하고 네 마리 독사는 우리 몸을 이루는 지수화풍 사대이고 꿀은 오욕락(재물욕, 여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을 상징한다.

1) 149쪽

성자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다.

그러자 그사람이 손가락을 보자 “손가락을 보지말고 달을 봐라”

그렇다고 이태백이 뱃놀이를 하다가 강에 비친 달을 보고 그걸 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망원경으로 달을 보거나, 달은 탐사하는 그런 뜻이 아니다.